

# 국힘 '尹 친정체제' 완성...주요당직 친윤 핵심 전진 배치

### 공천 실무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 수석 유상범...대변인단 친윤 일색 총선 대비 '직할체제' 구축 신호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단행한 당직 인선은 친윤(친윤석열)계 전진 배치를 통한 '윤석열 친정 체제' 구축으로 풀이된다.

이날 사무총장에 임명된 재선 이철규 의원은 당내 친윤계 핵심 인사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4인방' 중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무총장은 당의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며,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이다. 친윤 핵심 인재로 꼽히는 '백의중군'을 선언하며 말지 않았다고 언급했던 임명직인 만큼,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가장 상징적인 당직이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에도 박성민(전략 기획)·배현진(조직) 등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임명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까이 교류해온 사이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친윤계 핵심그룹이 주도하는 의원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다.

당의 '입'이 되어줄 대변인단도 친윤 일색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초선그룹 내 친윤 핵심으로 꼽히며, 윤희석·김예령 대변인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선대위 출신이다.

김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강민국 수석대변인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왔던 김민수 대변인 역시 친윤계와 가까이 묶인다.

이외에 총선 공천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초선인 박수영 의원, 당 홍보본부장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사실상 내정 단계에서 인선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호(號) 첫 당직 인선인 사무총장·대변인단 전면까지 보면 새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도부 상당수가 윤 대통령과 '직통' 연락이 가능한 관계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친정 체제'를 넘어서 '직할 체제'가 꾸려지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사무 부총장으로서 당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면서 "총선 국면에서는 당의 살림살이를 맡고 당의 내부 정리를 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핵심 당직을 독식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출직 최고위원들 역시 친윤계 일색인 만큼, 지도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친윤계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안정이 기본이 된 다음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질서 있는 다양성"을 인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내 비주류이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초선 강대식의 원을 앉힌 것은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비판적 시각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당의 화합을 위해 '연포탕(연대·포용·방평)' 정신을 실천했다"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초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사실상 친윤 주류와 결을 같이 했었다는 점에서 '구색 맞추기' 인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 대표나 친윤계와 격렬하게 맞붙었던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바 순천향당협위원장 또는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아직 새 지도부에 합류한 인사가 없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 "조합원 절반 이상 요구·횡령배임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하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상임중재정책위원장은 이날 민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협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4주만에 30%대 추락

### 리얼미터 조사...전주보다 4.0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을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리얼미터 기준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7%p 오른 58.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60대(1.6%p ↑)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9%p ↑), 서울(6.6%p ↑), 광주·전라(8.0%p ↑), 대구·경북

(6.9%p ↑), 대전·세종·충청(3.4%p ↑), 인천·경기(2.9%p ↑)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13.0%p ↑), 30대(11.3%p ↑), 50대(5.3%p ↑), 40대(5.5%p ↑)에서 부정적 평가가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층(2.6%p)에서도 부정 평가가 소폭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8%p 내린 41.5%, 더불어민주당은 1.9%p 오른 42.6%로 조사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던 직전 조사가 또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16일 출범

### 윤재갑 위원장...25인 구성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인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국회의원과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한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채웠다.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또 ▲수산, 관광, 해운, 항만, 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 발전 방향 제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력 제고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

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아있는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승선문의** 예약센터  
삼도해운, 플래티늄 061-834-3434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